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복합 쇼핑몰 논란

울을 더 상승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평이 나왔다. 물론 복합쇼핑몰 단일 이슈만의 결과는 아닐 것이지만 말이다.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에 대한 논란은 2015년 신세계 백화점을 복합 쇼핑몰로 새로 착공하여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기 직전인 2019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신세계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듯 했지만 소상공인과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면서 상생 방안을 요구했고, 광주 서구의회가 조례안을 통해 제동을 거는 등 정치권에서도 반대 의사를 내놓았다. 지역 사회에서도 무조건적인 찬성보다는 더욱 심각해질 터미널 일대 교통 체증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늦춰졌고, 이후 2017년에 최초 안보다 규모를 줄인 안으로 진행되었으나 당시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 분위기가 대형 복합 쇼핑몰의 진출을 전국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그런지 신세계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2020년 2월 공식적으로 사업을 보류했다.

최근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이슈가 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에는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와 롯데, 현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는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 서구 광주신세계 옆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 등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나온다. 광주는 인구에 비해 유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 유통업계에서 눈독을 들이는 도시다. 대형 유통 3사가 뛰어들 만큼 광주 복합쇼핑몰은 빠르게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광주시는 여

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 주도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광역 통합 유통센터 구축, 전통시장·상점가 고객 휴식·편의 시설 확대 등 8개 시범지구 조성, 트램·도로 등 연결 교통망 구축을 포함한 9000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합 쇼핑몰을 원하는 도시 구성원들의 바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필자도 개인적으로 참고형 할인점이나 대형 복합 쇼핑몰이 광주에 입점해 다양한 쇼핑 문화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나 교통 문제를 배제하면서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 이러한 문제를 광주시민이 아닌 입점하는 업체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와 시민이 평가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 처음부터 제약하는 조건들이 아닌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자들이 이 목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등산 관광단지와 송정역 복합 개발, 군 공항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예상된다. 논란의 접점을 모색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하고, 전반 양측의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위해 고민해야 될 때이다. 얼마 전 복합 쇼핑몰 유치를 주제로 한 TV 토론은 각각의 이익 집단을 대변하거나 정치적인 문제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각각의 입장이 있었지만 토론이란 것은 찬성과 반대의 선악의 논리가 아닌 협의의 과정으로 보고 대화하고 조정해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타협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빨간 소화기

넘어지기까지 하였다.

녀석 비슷하게 사각 얼굴을 한 놈을 길거리에서 보곤 했다. 녀석 사촌인지 형인지 몰라도 덩치는 컸는데, 주로 사거리나 관공서 앞에서 초병처럼 서 있었다. 녀석이 불쌍했는지 간혹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얼 넣어주곤 한다. 그때마다 녀석은 짝 벌린 입으로 하얀 봉투를 땀 큼 받아먹곤 무슨 일 있었느냐는 듯 시치미를 떼곤 했다.

그나저나 미운 녀석, 오늘 밤은 기어코 추방해야겠다고 작심을 하고 출근했다. 그래서인지 여태 보이지 않던 녀석이 회사 여기저기 보인다. 마치 북과 공작원처럼 출입구는 물론이고 계단이나 화장실 곳곳에 침투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날 쏘아본다. 방구석과 창고, 차 트렁크에도 있다. 흡사 도깨비 같다. 녀석을 몰래 버리려는데, 과장님이 조만간 어느 기관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필 녀석을 근황을 알아보란다.

하는 수 없이 돌아섰다. 녀석은 감나무에 달린 홍시처럼 회사 곳곳에 주렁주렁 매달린 채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며 경계의 눈빛을 멈춘 적이 없다.

하루 이를, 일주일 이 주일, 한 달 두 달, 그렇게 1년이고 2년이고 견뎌 내고 있는 그 끈기에 은근히 짜증이 난다. 아니 질투가 난다.

내게는 눈곱만큼도 없는 저 인내심으로 녀석은 매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무엇인가를 저리 절실하게 기다리는 힘,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는가. 매일 퇴근 시간만 바라보고 사는 성급한 사내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았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이랬다저랬다 하는

마음은 또 어떤가.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녀석을 부쉬 버리고 싶었다.

녀석을 질투하는 내 가슴에 심화(心火)가 요탑(纒塔)처럼 불꽃이 맹렬히 일었다. 선덕여왕처럼 녀석은 내 잠자는 심장에 반지를 올려 나를 이끌기만 태워 버리려나 보다. 그러면 여왕을 사랑한 지귀(志鬼)의 가슴이 타오르듯, 내 가슴에서 번진 불길이 마을을 도시를 온통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지.

하지만 애써 타오르는 마음을 눌러 앉혔다. 오매불망 저 정신, 저 진득한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곁에 슬그머니 앉는다. 정신을 모아본다. 손을 얹고 발을 얹고 그렇게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 본다. 아니 아무 쓸모가 없을 때 비로소 빛나는 그가 되어 본다. 그리고 진정 필요할 때 온몸을 쏟아붓는, 자신을 버리고 뛰어드는 용기를 떠올려 본다.

문득 '연탄불 함부로 차지 마라'라는 어느 시인의 시구가 떠오른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주연은 아닐까.

내 몸에도 흑시 저 녀석과 같이 숨어 있는 녀석, 내가 깨우기를 기다리고 있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녀석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 오늘은 내 몸속에 그 누군가를 위해 종일 자신의 삶을 기다림으로 채운 녀석이 있는지 찾아 봐야겠다. 더불어 버려야 하는 내 심화를 다스릴 녀석도 하나 마음속에 들여야겠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 개선해야

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차별 시정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7만여명은 의미이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은 듯 하나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노사 관계의 특성을 무시한 법률과 차별 시정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노동위원회에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법상 차별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기간제법 제2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4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간제법의 구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정년이 보장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신분 변화가 있으나, 실질적인 임금 등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였을 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중규직'이라는 기형적인 근로자 신분을 만들어 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이 불안정한 근로자가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간제법을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사건은 한 해 수백 건씩 처리되지만 기간제법상 차별 시정 제도 이용은 수십 건에 불과한 이유이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신분이어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논리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중규직'의 사회적 신분이 더 굳건해지고 있는 환경을 법률에서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사건은 '갱신 기대권'이라는 논리로 계약 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해석하는 노사관계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가 '중규직'이 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규직'도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에서는 차별 시정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간제 근로자의 구제 대상 범위를 확장하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노사 간에 차별이라는 단어는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 노사 자율에 맡겨 둘 것인가? 사회적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행정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미 노사 자율의 한계는 확인되었다. 노사관계의 실질을 반영한 법의 개정과 제도의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社說

고교 시험 출제 오류 빈발... '내신 불신' 어쩌나

최근 광주의 한 사립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 문답지 유출 사건은 학생과 학부모 뿐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의 기말고사 중 한 과목에서만 무려 네 개 문제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선 학교의 시험 출제 오류 등 성적 관리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자칫하면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의 경우 시험을 보던 중 담당 교사 생명과학 네 개 문항을 잘못 출제했다며 해당 문항을 수정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한 과목에서 네 개 문항의 정답이 바뀌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답을 치러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 학교의 내신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 지역 중고교에서 시험 출제 오류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광주시교육

청이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간 157개 중·고교에서 674건의 재시험이 치러졌다. 재시험 사유로는 출제 오류가 598건(88%)으로 가장 많았다. 90개 중학교 중 67곳(74%)에서 190건, 67개 고등학교 중 62곳(92%)에서 무려 484건의 재시험이 치러졌다. 특히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한 중학교에서 11건, 한 고등학교에서 15건의 재시험이 치러질 정도로 시험 관리가 엉망인 학교도 있었다.

이러한 출제 오류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는 문제의 정답이 없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부실 출제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들끼리 교차 검증 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빈발하는 시험 출제 오류를 줄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시급하다.

첫 단추 잘 끼운 시도 상생위 통 큰 협력을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조성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16년 만에 해소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민선 8기 첫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옛것제 전남도청에서 만나 열한 가지 신규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 사업인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는 시도 접경지에 1000만㎡ 규모로 조성,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또 미래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광주·전남 첨단 의료복합단지와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을 위해 양측이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까지 아우르는 공동 사업을 발굴·추진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국립 의과대학 전남 유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각각의 입장만을 앞세우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현안들에 대해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혁신도시 발전기금의 경우 권역 들인 지방세보다 조성비용이 많았음에도, 나주시가 내년부터 매년 50억 원씩 출연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혁신도시 이전의 성과를 주변 시군으로 확산하는 데 쓰인다. 광주 군 공항 이천도 국가 주도 특별법 제정과 이전 지역 주민 지원 대책 마련 등에 시도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006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 혁신도시를 조성해 한층 더 대형 공공기관을 유치했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상생 발전을 꾀하는 취지였다. 민선 8기 들어 시도지사가 반도체 특화단지 등 상생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시도는 첫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동반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통 큰 협력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9일 시행됐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 문화권과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이 법안에서 규정된 8대 역사 문화권에 광주·전남 마한 역사 문화권이 포함된 사실이다. 애초 제정 당시에는 누락됐던 광주가 개정안에서 새롭게 추가돼 광주·전남 이 역사 발전의 법적 토대 마련한 것이다.

마한 역사 문화권

마한으로 대표되는 지대역 고대사를 재조명할 전기를 맞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유적 안내판을 세우는 작업이 시급하다. 1996년 나주 복암리 3호분 발굴을 계기로 새롭게 밝혀진 이 지역 고대 마한의 역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함평 예덕리 만가촌 고분군의 경우 전남 대학교 박물관이 2004년 발굴해 목관·목곽·옹관들이 2~5세기에 시차를 두고 추가돼 가족묘를 이루고 있는 마한 유적으로

확인됐다. 발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고분은 청동기시대에 성행했던 지석묘 이후 목관묘·목곽묘·대형 옹관묘·영산강식 석실로 이어지는 '전남 지역 마한 묘제'의 변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유적 안내판에는 "이 고분군은 4세기부터 5세기에 걸치는 백제시대의 옹관묘군이다. 원래 이 지역은 마한 소국이 있었던 지역인데 모두 백제에 통합되었다. 옹관묘란 사람의 시체를 독에 넣어 묻은 묘를 말한다. 이러한 옹관묘는 영산강 하류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마한 역사 문화권의 자산을 백

제시대 유적으로 소개하고 지역 고대사를 오독하고 축소하는 내용이다. 역사 문화권 특별법 시행에 맞춰 광주 시·전남도를 비롯한 지역 자치단체들이 각종 사업에 착수했거나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유적을 발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바로 기준에 발굴된 문화재와 유적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역사 바로 세우기'다.

산강 하류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마한 역사 문화권의 자산을 백

제시대 유적으로 소개하고 지역 고대사를 오독하고 축소하는 내용이다.

역사 문화권 특별법 시행에 맞춰 광주 시·전남도를 비롯한 지역 자치단체들이 각종 사업에 착수했거나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유적을 발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바로 기준에 발굴된 문화재와 유적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역사 바로 세우기'다.

산강 하류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마한 역사 문화권의 자산을 백제시대 유적으로 소개하고 지역 고대사를 오독하고 축소하는 내용이다.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penfoot@

꿈꾸는 2030



조선익 위임연구원이사·공인노무사

필자는 공인노무사로서 얼마 전 모 사립학교 비정년 트랙 교수들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하였다. 사람들 간 관계와 제도에서 차별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자주 등장하고 있고, 노사 간에도 차별이라는 단어는 유행어가 되어 버린 지 오래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2조에서는 '임금, 정기 상여금, 명절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 그 밖에 근로 조건 및 복리 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기 내용만 본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한데 제도의 취지처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예방되고 개선되고 있는 것일까? 필자가 모 사립학교 비정년 트랙 교수들에 대한 차별 시정을 신청할 당시는 5월경으로 해당 사건 번호는 7년이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